

# 나눔의 情 ‘빵~빵’ 하네

### 구미 불자 30여명 출자 ‘아름다운 베이커리’ 열어



구미지역 시민들의 출자로 설립된 아름다운 베이커리 개점식을 무지개공부방 아이들이 하모니카 연주로 축하하고 있다.

##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갓 구워낸 빵들이 숨쉬듯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테이블을 장식하고, 율랑윙랑 무지개 공부방 아이들 30여 명이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했다. 사랑의 빵 냄새가 퍼져가듯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 지길 바란하며.

2월 21일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30여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사랑의 빵 공장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다. 1997년부터 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가족지원사업과 ‘국제결혼 가족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온 아름다운 가정만들기(이사장 법등, 대표 장훈성)가 만든 회사다.

후원금만으로 이어온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풍족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왔다.

개점식은 법등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장)과 30여 명의 시민출자자, 정부관계자, 구미경찰서, 시민운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이뤄진 전국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처음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상했으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면서 1억 2천만 원이 모였다. 또, 노동부, 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가 협력단체로 참여하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민관거버넌스’ 형태를 띤 사회적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가정만들기 박신규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하기위해 빵을 만든다”는 미국의 루비콘 베이커리의 전략처럼 새로운 고용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미시가 연간 300억 불수출이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음식에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이 많다”며 “이런 사업을 통해 양지와 음지가 모두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장과정의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많은 공부방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였다.

장훈성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며 “지역의 영세 소매 빵집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 가정용 상대로 한 소매 유통 대신 기업, 관공서, 학교 등으로부터의 대량주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타 지역에 한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검증된 단체가 매장을 운영해 그 지역 공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분점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재료를 공급받는다. 각 학교에 유기농 빵을 보급하면서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과 텃밭가꾸기운동 등과 연계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빵 전문위원인 경북외국어테크노 대학 호필조리학과 이병구 교수와 구미 제빵제과 학원 이재광 원장은 이미 유기농 제빵 개발과 특허등록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70평 남짓한 아름다운 베이커리에는 12년 경력의 베테랑 제빵사와 취업약계종에서 채용된 9명의 보조 제빵사가 이른 아침부터 10여종의 빵을 정성껏 만들어 낸다.

(054) 461-0565 배지선 기자 jsun@buddhanews.com

# ‘농업회생 위한 사회적 연대’ 씨 뿌렸다

###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취지 공감 전개 결의

## 3월 초 정식 출범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에 뿌리고 간 씨앗들이 지역 농업회생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아하기 시작했다.

생명평화결사 수지행 사무국장, 광상수 대구경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약 30여명의 지역농민과 시민운동가, 생명평화결사 등불(회원)들이 2월 22일 경북대학교 복지관 교수회의실에서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준비모임을 갖고 농업회생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모임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천호준 의장, 대구 한살림 천규석 이사, 경북대 교수협의회회장 류진춘 교수, 김영호 신부 등 7명의 공동대표를 추대하고, 사회적 수요확충과 농민시장개설을 주요활동방향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는 조만간 사무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3월 초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운동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활동에는 대구 MBC가 활동프로그램을 짜고 보도하는 등 1년간 다방면



에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농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실무를 맡게 될 광상수 생명평화결사 대구경북 운영위원장은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대구 경북지역을 지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많은 농민들이 생명평화결사에 동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 “올해도 답사계획 다양해요”

##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 문화유적답사위원회(위원장 김태연, 대구대 국어국문과 교수는 2월 18일 연구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6년 답사계획을 확정했다.

3월 19일 하동경계사와 칠불암, 평사리 일대 답사로 시작하며, 4월18일에는 영주 흑석사, 부석사, 가흥리 일대, 5월에는 구례 화엄사, 천은사, 운조루, 연곡사, 6월은 강진무위사 백련사, 단산초당, 김영랑 생가로 답사를 떠난다.

지난해 8월 발족한 영남불교문화연구원 문화유적답사회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문화유적을 찾아 지금까지 네번의 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왔다. 재야사학자 김재원 박사

를 비롯해 언어, 미술, 한문학 등 우리문화와 문화에 조예가 깊은 지역대학 교수와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다방면 다각도에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총횡무진으로 이어지며 알차게 꾸러졌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 문화유적답사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반기중 전문위원단을 꾸려 답사계획과 내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053) 761-8950 배지선 기자

## 생활홍수지리 장래문화 강좌

### 대구시원주지연협회

대구시원주지연협회(회장 법혜)는 지난 1월 9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맺은 상호협력체결에 따라 오는 봄 학기부터 대구

지역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생활홍수지리강좌와 장래문화강좌를 불교대구회관 5층에 개설한다.

3월 9일부터 개강하는 장래문화강좌는 매주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보건대 서분회 강사가 강의하며, 3월 11일 개강하는 생활홍수지리강좌는 매주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동대 사회문화교육원 박무용 강사가 강의한다.

모집인원은 각 30명이며,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국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도 발급된다. (053) 629-0408

## 월정사 청소년 명상스키캠프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월정사와 용평스키장에서 ‘명상과 함께 하는 청소년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스키캠프에서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40명은 ‘나를 돌아보자’를 주제로 명상과 참선, 레포트 활동을 즐겼다.

남동우 기자

## 참좋은 유치원 옥외 관세음보살 점안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옥불보전 참 좋은 유치원에 8m 높이의 옥외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2월 21일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가람빈 가람장단의 찬불가, 현판제막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우학 스님은 “중생을 그리워하며 중생과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

로 나누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영대네 거리가 환해졌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대응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옥불보전인 참좋은유치원과 무량수전인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중이다. 참좋은유치원은 1층-3층 유치원, 4·5층은 대법당, 6·7층은 스님 수행관, 옥상은 생대공원이 들어서 있다. 배지선 기자



##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

### 서문자비거사리회

서문시장 불자 상인들의 신년대체인 서문자비거사리회(회장 김강식)가 서문시장 화재의 아픔을 딛고 화합과 재기의 뜻을 다지며 2월16일 알리앙스에서 2006년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를 거행했다(사진).

10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김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문시장 화재로 60여 회원중 5명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상인 모두를 가족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대하고, 심적 불편으로 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립 14년을 맞아 범당건립의 원이 이뤄지도록 재도약하는 계기를 맞자”고 덧붙였다.



가족을 부처님같이 고객을 부처님같이 대하자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서문자비거사리회원들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으며 화합의 율타박을 높이 던졌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3-634-3429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베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완  
난치병 치해방

중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1 완전 맞춤 치료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 닥터스 02)782-0022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기법은 NLP와 최면입니다.”

# 국제공인 최면(치료)사 자격 전생·빙의(치유)사 과정

게임중독·다이어트·알레르기·금연/금주·우울증·대인공포증·불면증·집중력/학습력향상·습관교정·빙의 등 국제공인심리상담(치료)사 과정

본 아카데미 원장이신(설기문 박사)은 KBS1-TV KBS스페셜 '마음' 6부작에 특별 출연하여 NLP와 최면으로 오이알레르기 치료와 맨발로 숲돌리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개인심리상담 : 당사에는 국제공인(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합니다.

개강 3월 7일

- 모집인원 : 주중반 30명, 토요일 30명, 일요일 30명, \* 전생·빙의반 : 30명
- 교육시간 : 주중반(화·목) 19:00~22:00, 토요일 13:00~21:00, 일요일 10:00~18:00, \* 전생·빙의반 : (수)10:00~18:00
- 국제 공인 트레이너 설기문 박사 직접지도(한국 NLP·최면아카데미 원장)
- \* 자세한 교육내용 : 홈페이지 [www.nh114.co.kr](http://www.nh114.co.kr) 참조 바람

## 설기문 무료공개강좌



-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육학박사·상담심리학 전공)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임
-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국제공인 NLP·최면치료·시간선치료 트레이너
- 전생·빙의 치료 전문가

• 주요저서(역서) : NLP의 원리, 최면의 세계 등 다수

### ▶ 무료 공개 강좌 안내 ◀

- ♣ 일 시 : 2006년 3월 4일 (토) 오후 2시~5시, 2006년 3월 5일 (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한국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장 (서울시청역 조선호텔 정문 앞 소공빌딩 3층) 정원 - 50명(선착순 예약접수 마감)
- \* 자세한 내용은 [www.nh114.co.kr](http://www.nh114.co.kr) 참조 요망

국제공인 교육기관  
**한국 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상담 : 02)757-8008